

Robert Jouanny

프랑스 파리-소르본느 대학 교수  
불어권연구국제위원회 유럽소장

## Robert Jouanny씨와의 대담

원윤수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불어권 분야의 전문가이시므로 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주아니 : 예, 선생님. 저 역시 선생님을 다시 뵙고 이렇게 불어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불어권의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죠. 그럼 선생님, 어떤 이야기 부터 할까요?

원윤수 : 우선 불어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 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아니 : 예, 불어권이라는 말을 정의한다고 할 때, 우선 우리가 불어를 말할 때마다 불어권이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너무나 쉬운 대답일테지요. 그런만큼, 우리가 현재의 불어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불어권에 속하는 프랑스 문학을 약간 논외로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늘 프랑스내에서 '불어권' 혹은 '불어권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어를 유일한 혹은 주된 의사소통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설명을 덧붙이죠. 불어를 유일한 의사소통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벨기에의 불어권지역과 스위스의 불어권지역이며, 불어를 주된 의사소통어로 사용하는 지역은 아프리카대륙의 여러나라의 경우이며, 불어가 소수어로 사용되는 지역은 마그레브 지역의 여러나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그레브의 경우 불어는 아랍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아마도 아랍어보다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 불어권의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불어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공간이라는 개념이나 공용어 혹은 전통어라는 개념으로만 다루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분산된 불어권이라고 부르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때문에-그 이유는 때로는 우연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순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불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어로 글을 쓰려고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과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있지요. 저는 이러한 작가들까지도 불어권의 연구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어권에 소속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원윤수 : 그러면 다음으로 불어권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아니 : 그러지요. 불어권로서의 과거에 관해서는 일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요. 저는 불어권의 과거는 그 기원에까지, 즉, 18세기, 불어가 전 세계의 문화어였던 시대, 다시 말해 유럽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지요. 이렇게 볼 때, 결국 불어가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던 셈이죠. 러시아제국의 카테리나여왕, 영국의 해밀턴왕, 이태리의 카사노바왕들은 자신들이 불어이외의 다른 나라말을 쓰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여기에다 우리가 지금 '식민지 쟁탈'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을 덧붙여야겠지요. 확실히 19세기 내내 지속되었던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나 프랑스 세력권이었다가 보호령이 된 국가에서 불어권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두 가지 경우로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일이지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어가 유일한 공용문자가 된 국가가 있지요. 아프리카대륙이 그런

경우였지요. 아프리카에는 3-400개의 언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많은 언어들은 오늘날까지도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불어가 더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마그레브 같은 지역에서는 하나의 언어와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었지요. 거기서는 아랍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마그레브는 가장 완강하게 불어를 받아들하려고 하지 않았던 국가이며, 아랍문명과 아랍문학이 가장 중요한 문명과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역이죠. 또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에 의해서 불어가 당연히 자신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불어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러한 경우이며, 물론 퀘벡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퀘벡주는 깜박 잊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했어야 했던 곳이죠.

이제 불어권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불어권의 현재는 20세기의 전개와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는 탈식민지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탈식민지화 현상의 결과, 옛날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불어사용을 강요했던 국가들의 아이덴티티를 훼손시킨다는 비난을 받으며 불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마다가스카르 정부 당국은 10년 내지 15년 동안이나 불어를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약 7-8년전부터야 정책을 바꾸어서 다시 불어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화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이유도 있지요. 그러므로 불어권의 현재는 여러 나라들 사이의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

서는 불어가 아프리카나 마그레브에서 처한 상황처럼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침해하는 언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해주는 언어로 여겨지고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분명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예가 퀘벡주라는 것을 잘 아실테지요. 퀘벡주민들의 아이덴티티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식민지 경영자들에 의해서 약간은 소원시되어 왔던 언어 특유의 지속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강화되고 확고하게 되었던 셈이지요. 퀘벡주민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청된 것이 바로 언어인 셈이죠.

그러므로 불어권의 현재는 나라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 여기서 저는 불어권의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각을 보여주게 된 셈이군요 -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적 성격을 띤 하나의 문화, 하나의 문학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르본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 세미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제리인이나 모리타니아인 및 퀘벡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했지요. 그때 저는 어떤 모리타니아 학생이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리타니아 섬은 영어권이지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나름대로들 해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10-15개의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건 불어로 말하고 있으며, 불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어를 우리 모두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어와 불어권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2억 내지 2억 5천만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5천만명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어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것인 셈이죠- 또한 불어권의 미래는, 다소 회화적인 이미지이기는 하나,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라는 “선생”과 그 학생을 모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에서만 확고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대륙에 걸쳐서 불어로 말하는 국가들, 즉 아이티에 있느냐 퀘벡이나 마다가스카르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진화과정을 거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불어를 말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불어권의 미래는 서로 다른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산되어 발전함으로써 마치 2,000여년전의 라틴어의 역사처럼 될 수도 있겠지요. 유럽의 언어였던 공동의 언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언어는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즉, 라틴어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프로방스어, 카탈로니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가 되었지요. 말하자면 이러한 언어들이 라틴문화를 형성한 셈이지요. 이 언어들은 서로 가까우면서도 아주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언어들 사이에는 한가지 주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 서구인들, 즉 서구유럽인들은 모두가 라틴 문명의 상속자들이라는 공동의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그것이 한 세기나 두 세기 후가 될 지 혹은 10세기 후가 될 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되었던 라틴적인 속성과 같은 모습을 띤 프랑스적인 특질이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어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살아있는 어떤 것, 즉 장소와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글썄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

겠지만, 하나의 성운, 불어와 관계를 맺게 될 일군의 언어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께서 불어권의 미래가 빅토르 위고나 앙드레 지드나 에밀 졸라의 언어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리 오래 지탱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목전의 미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원윤수 :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군요.

주아니 : 천만에요.

원윤수 : 다음에는 불어권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주아니 :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불어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문화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과거의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불어권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막아내기 어려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불어권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단지 문화적인 위치에만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화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불어권이 북남, 남북, 혹은 동서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프랑스적인 모델”을 참고하지 않고도 국민과 국민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적인 모델”이라는 나의 표현 속에는 많은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불어권의 미래는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 거기에는 경제적인 반향도 포함되겠지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불어를 쓰는 국가의 주민들과 상공인들이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프랑스로부터 기계류를 구매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우리들 지식인들이 관심가질 분야는 아니지요. 그것은 그다음 문제지요. 그것은 경제적인 관점이니깐요. 제가 보기에 불어권은 지금과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문화적인 유대”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원운수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럽공동체와 불어권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아니 : 유럽공동체와 불어권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포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오늘날 유럽으로 변화된 이 조그만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볼 때, 불어권이 점하고 있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명 정도가 불어를 사용하는 데, 여기다 약 천여만명에 달하는 벨기에와 스위스인 불어 사용 인구를 합친다 해도 6천여만명 정도로, 이 정도로는 전체 유럽 인구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어권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불어의 세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의 저자인 리바롤의 표현을 빌려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세계성”이라는 문제를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불어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그것은 아마도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께 이와 거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중부 유럽의 한 친구가-그는 헝가리 사람이었지요- 나에게 했던 대답을 인용할까 합니다. 그는 불어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일이년전에 그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헝가리인들은 왜 부다페스트에서-그는 부다페스트 대학의 프랑스학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불어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도 역시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특히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저의가 없는 의사소통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말을 더 분명히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더군요. “당신도 이해하실 테지만,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구매자들, 다시 말해 우리의 불특정의 대화상대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접근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정치가 힘을 행사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외의 다른 언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심지어 독일어와도 다른 언어여야 하며, 바로 불어가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에는 남부유럽, 즉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사이에는 공동의 라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가령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별로 사용 영역이 넓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유럽에는 아마도 지금은 약간 탈색되고, 경제 활동에 가려서 부차적인 차원으로 밀려나 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요소인 문화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스페인 정부의 현직 문화부 장관은 소설가인 헤오르헤스 썬프론으로, 불어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로 현직 스페인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곳곳에는 개인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불어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유럽의 고가구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가구들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40여년전부터 프랑

스와의 문화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불어가 계속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아주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많은 루마니아 친구들이 있지만, 루마니아의 중류 계층들이 불어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근에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를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루마니아인들이 나무랄 데 없는 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저는 불어에 대해서 호의적인 많은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불어가 여러가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이겠지요 - 불어는 영어처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소 역설적이긴 해도, 미래의 유럽공동체에서 사용될 두 개의 주요한 언어가 있다면, 불어와 독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독일어도 유럽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운수 :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 아주 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장차 불어권과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문화적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주아니 : 이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저는 한국을 잘 모릅니다만, 장차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포괄적인 고찰에 그치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권이나 여타의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불어권을 통해서 대륙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세계적인 규모로 퍼져 있는 언어는 모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의 중요성을 격하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언어들에 아주 넓기는 하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

되는 언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중국 사회와,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잘 모르지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사회를 생각할 때, 최근에 이르기까지 독일어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그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불어는 영어처럼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불어권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따금 불어 사용에 약간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하거나 불어를 하거나 포르투갈어를 하거나 스페인어를 하거나 간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밤바라어로 된 문학이나 필어로 된 문학이나 이페어로 된 문학을 할 경우, 밤바라족이나 필족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상의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 공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다른 한편, 저는 불어가 한국이나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시아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아시아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제적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생고르 대통령이 "보편성의 문명"이라고 부른 것에 도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사회와 한국 사회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리라고도 생각되지만, 저는 아시아 사회와 한국 역시 자기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절대로 제가 불어권을 문명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을 가르치는 수단 정도로나 생각하고 있다고는 -물론 농담같은 얘기지요-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는, 특히 우리들 서구사회, 우리들 유럽 사회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문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몰랐던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어권이나- 감히 단어를 만들어 낸다면 - “한국어권”이 프랑스 문화에 대하여 수행할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어권 역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불어권이 그 자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불어권은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나 여러분 한국인들을 모두 진정한 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고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점석 역>